

# 成熟 위한 基盤構築다짐

## 人力開發制度定着에 力點

### 〈韓國電力技術(株)篇〉

韓國電力技術(株)는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高級技術人力養成策의 일환으로 繼續教育制度(Continuing Education Program)를 創案하여 社内에 碩士, 博士待遇課程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先進電力技術研究開發센터」의 發足과 原子力發電所標準設計研究의 開始, 그리고 原電 11·12호기의 設計事業着手, 美國 原子力發電所建設事業에 대한 技術用役輸出 및 터키 原子力發電所設計用役受注活動의 進展 등 刮目할만한 成果를 거두었다.

이러한 事實들은 그동안 韓國電力技術(株)가 指向해 온 基盤擴充과 成長에서 内實을 다지기 위한 質的인 改善을 이루하기 위한 하나의 劃期的인 轉換이었다고 풀이해도 좋을 것 같다.

韓國電力技術(株)는 이러한 지난해의 成果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이를 더욱 擴大·發展시킴과 동시에 人力開發制度의 定着, 業務電算化 基盤造成, 海外事業의 擴大, 그리고 電力技術綜合化體制의 構築 등을 經營方針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첫째의 人力開發制度의 定着은 技術集約產業體인 엔지니어링會社로서는 너무나 必須의인 일임에 틀림없다.

韓國電力技術(株)가 지난해에 시작한 繼續教育制度는 그동안 職員들의 热誠의in 參與로 順調롭게 출발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優秀한 成績을 올리는 職員들에게는 應分의 處遇를 하고 主要現場에서의 擴大施行



## 海外事業도 더욱 擴大強化

도 하여 이 制度를 定着시킬 豫定이다.

經歷開發制度 (Career Development Program)도人事記錄의 電算化 實現으로 本格化되고 있다. 各個人의 經歷을 體系的으로 쌓으면서 專門人으로서의 發展을 誘導하는 이 制度를 會社와 함께 成長하겠다는 職員들에게 應分의 機會와 配慮가 주어지도록 定着시키고 繼續的으로 發展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業務電算化 基盤造成은 지난해부터 推進된 設計自動化 (Computer Aided Design) System의 導入과 會社專用電算機의 導入에 따라 大幅의 業務電算化를 올해 안에 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業務의 電算化는 時代의 要求이며 產業技術社會에서 情報技術社會로 轉換하는 基本道具이기도 하다. 未來學者인 Marvin Cetron은 電算機를 使用하는 Telemarketing Specialist, CAD/CAM Specialist, Software Writer를 向後20年間 가장 需要가 높아날 三大職種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技術用役會社나 技術者は 거의 모든 業務를 電算化할 수 있는 能率과 信賴性을 向上시킬 수 있게 되었 것이다.

『韓國電力技術(株)는 모든 任職員의 이 知識產業遂行의 基本道具인 電算機를 自由自在로 使用할 수 있도록 訓練할 계획이다.』



셋째로 海外事業開發을 더욱 本格化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大規模의 海外事業을 적어도 하나는着手할 計劃으로 있다. 現在 韓國重工業 等과 함께 開發하고 있는 수개의 大規模海外事業受注에 成功한다면 原子力界의 目標인 海外進出이 이루어지고, 國家的으로도 輸出立國에 있어서 主要課題인 高附加價值의 知識產業輸出의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韓國電力技術(株)는 그동안 着實히 다져놓은 國內基盤을 土臺로 海外事業을 成功的으로 運營한다는 方針 아래 한편으로 海外事業經驗이 蓄積됨에 따라 國내產業에 對한 이 會社의 寄與도 더욱 向上될 것으로 별씨부터 期待를 모으고 있다.

째째는, 電力技術의 綜合化 (Integration)인데, 지금까지 韓國電力技術(株)는 發電所의 建設段階에 必要한 設計技術을 重點으로 開發, 活用해 来た. 그러나 앞으로는 業務電算化에 따라 老大 한 知識과 Data의 管理가 가능하고, 運轉事業本部와 先進電力技術開發센터의 業務가 活性화되어 이제까지의 日常的 技術業務에서 脱皮, 電源開發企劃 等 각종 研究調查, 企劃業務에서 부터 運轉, 補修까지 電力技術의 全分野 (Full Spectrum)에 걸친 技術의 綜合化를 이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routine engineering으로 부터 integrated system engineering으로 轉換하여, 所謂 "High Technology Company"를 이루어 先進技術의 隊列에 同參함과 동시에 이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全體의 engineering體制가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韓國電力技術(株)의 이와 같은 意慾的인 計劃과目標들이 順調롭게 達成된다면 이 會社는 國際的으로도 차량할 수 있는 先進技術用役會社의 基盤과面貌를 갖추게 되어, 韓國電力그룹 (Korea Electric Power Group)의 主要一員으로서 電力技術自立의 求心點 役割을 훌륭히遂行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原子力A/E의 自立도 더욱 促進될 展望이다.